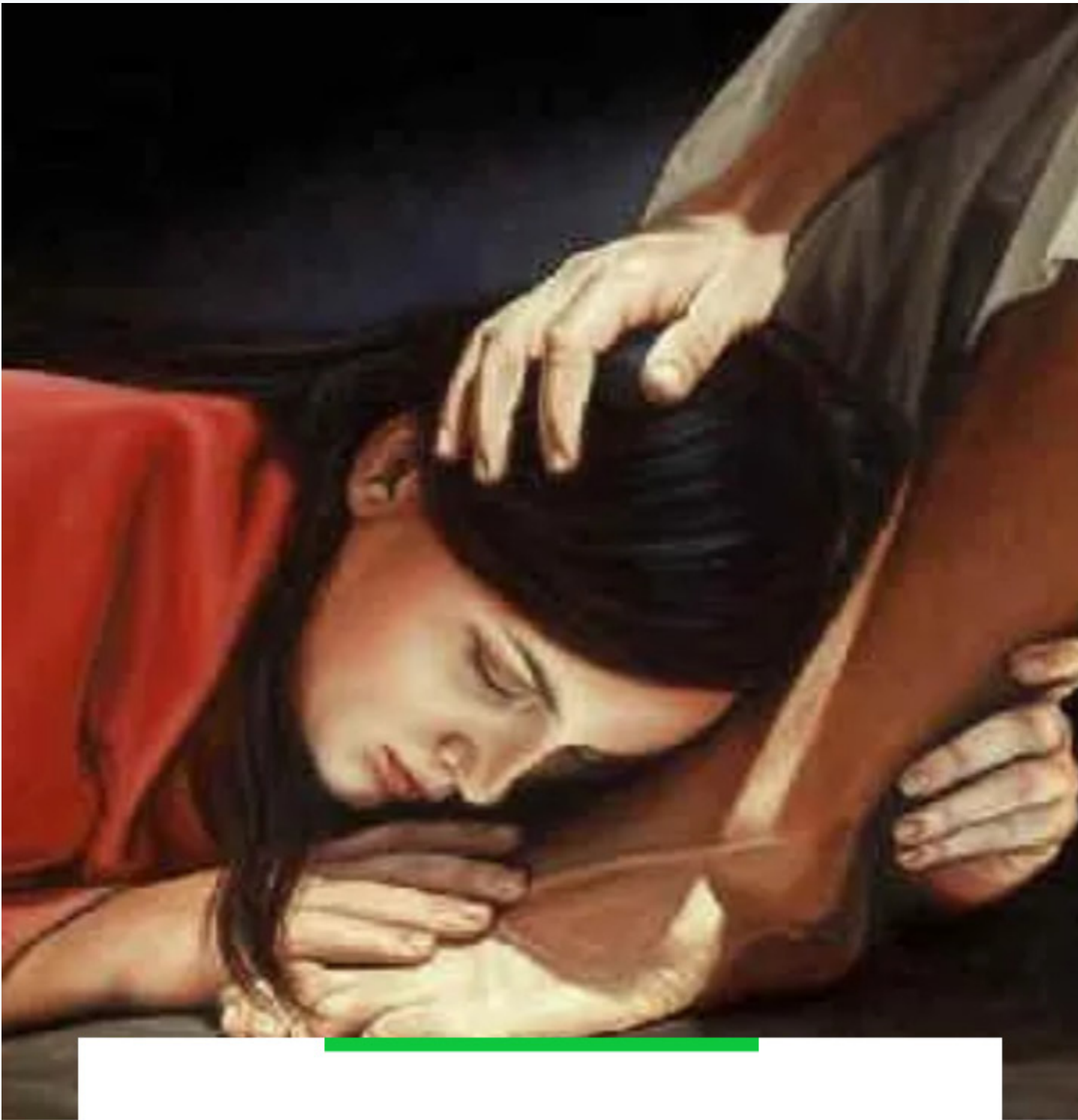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아가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아가서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데이빗리 목사

아가서 1장 =====

[아 1:1]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는 단순한 연인의 연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 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깊고도 애뜻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원어 <시르 하쉬리님>은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을 지니고, <시르>는 ‘노래’를, <시림>은 ‘노래들’을 가리켜 이 한마디 속에 사랑의 다층적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을 뜻하는 <아세르>는 이 여정의 문을 여는 초대장과 같고, ‘솔로몬을 위하여’를 뜻하는 <리쉬로모>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임을 잔잔히 일깨워 줍니다.

고대 유대 전통에서는 이 구절을 유월절 기간에 낭송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탈무드에는 성경 전체를 ‘거룩’이라 부르고, 아가서를 ‘지성소’라 칭해 가장 깊은 내밀함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우리로 하여금 매 예배와 묵상이 단순한 관습을 넘어, 하늘 보좌 앞 혼인 잔치의 한 장면임을 깨닫게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증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교부 오리겐은 아가서를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읽을 수 있는 시’라 일컬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신랑을 향해 부르는 갈망의 노래’라 해석했습니다.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 책을 평생 묵상하며 주님과 영적 합일을 체험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아가서를 통해 깊은 위로와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보다, 먼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율법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명령 이전에 초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사랑의 응답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의 예물을 드려 보십시오. 그때 아가서는 더 이상 먼 옛날의 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는 살아 있는 사랑의 연가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화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 1: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 “입맞춤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시크>이며, 이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영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 문화권에서 ‘입맞춤’은 두 영혼의 언약적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단지 육적인 접촉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나누며 생명과 존재를 교환하는 깊은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입맞춤은 가족 간의 축복, 제자와 스승 사이의 충성, 신랑과 신부 사이의 언약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특히 결혼 서약에서

는 입맞춤이 그 서약을 완성하는 ‘봉인’의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구절을 주님과 성도가 이루는 ‘신비한 연합의 서문’이라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말씀이고, 입맞춤은 성령의 친밀한 호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구나”-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 <도디카>이며, 단순한 감정 이상의 헌신과 언약적 사랑을 포함합니다. 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선언되는데, 포도주는 성경에서 잔치와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시 104:15). 유대 전통에서 결혼식의 잔은 포도주로 채워졌으며,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는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축복을 뛰어넘습니다.” 이는 단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구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호흡이 되고, 성령의 감화가 내 영혼을 채우는 그 접촉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알기에, 신부는 가장 먼저 입맞춤을 구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했던 장면(창 29:11)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입맞춤은 단지 연정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둘의 연합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의 친구로서 입맞춤으로 우정을 확증했고(삼상 20:41), 신약에 와서는 가롯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반한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입맞춤이 지닌 영적 무게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입맞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애착 형성을 상징합니다. 존 볼비(John Bowlby)의 애착 이론에서도, 신체 접촉은 영혼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라 했습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피셔도 “입맞춤은 인간의 말 이전의 언어이다”라고 하며, 입맞춤을 ‘본능적이지만 신비로운 언어의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은 말씀의 지식으로 시작되기보다, 입맞춤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그분의 호흡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언

약을 맺고자 하는 내적 열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맞춤은 우리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기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불러내시는 초청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입을 여시고, 산상에서 천국을 말씀하셨으며, 최후의 만찬에서 입맞춤 대신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과 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입맞춤을 원하십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규범이 아니라 관계로, 경외가 아니라 친밀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입맞춤은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는 첫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입맞춤으로 저를 만나주소서. 지식이 아닌 사

랑으로, 의무가 아닌 열망으로, 거리감이 아닌 연합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아 1: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가서가 노래하는 이 구절은 기름부음과 이름이 어우러진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기름 <세멘>은 제사장과 왕에게 부어지던 거룩한 기름으로, 성령의 임재와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름 <셈>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권위와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로 세상을 매혹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 기름부음은 하나님과 사역자를 연합시키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성막 기름 조제법처럼, 몰약과 계피, 감람유, 카시아가 어우러진 향품은 제단과 사람에게 부어져 공동체가 새 언약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의 사명을 위임했고,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을 확증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 23:5] 주

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삶의 풍성함을 상징함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서도 신부는 결혼 전 향유를 몸에 바르며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실의 혼인 잔치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향유를 부어 언약을 확증했고, 처녀들이 그 향기에 이끌려 신랑을 사모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향해 끌림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단지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넘어서, 신부 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곧 히브리어 <마시아흐>, 즉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인간적인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기름부음 아래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후 2: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의 향기니”라고 말하며,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존재임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순간을 “[요 12: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쏟아진 향유와 같고, 그분이 있는 곳마다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름부음의 향기는 주님의 임재를 생생히 기억하게 합니다. 율법 이전에 사랑이 있었고, 명령 이전에 초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날마다 이 향기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과 예배가 주님의 기름부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1:4] 왕이 나를 그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

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
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
땅하니라

이 구절은 사랑의 주도권이 신랑에게 있음을 보여
줍니다. “왕이 나를 그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
는 표현은 신랑이 신부를 단둘이 있는 밀실, 곧 내밀
한 교제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장면으로, 이는 곧 하
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은밀한 임재의 자리로 이끄시
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이끌다’는 동사 <마샤크>는 ‘끌어당기다’,
‘매혹시키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이는 단순한 따
라감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끌림을 뜻합
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호 11: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
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의 사랑은 강권적인 초청이 아니라 부드럽고 달콤한
인도하심입니다.

“그의 방”은 히브리어로 <헤다림>이며, 복수형으로

쓰인 이 표현은 단순한 방 한 칸이 아니라 궁전의 깊은 내실, 왕의 비밀이 머무는 가장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순한 외적 만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사랑임을 보여 줍니다.

고대 이스라엘 결혼식 전통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챔버’라 불리는 밀실로 데려가는 것이 결혼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도 열쳐녀 비유에서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고 준비된 자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듯이[마 25:10], 이끌림은 곧 관계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은, 주님과 교제를 경험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는 영적 기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즐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히브리어 <길>(기뻐 춤추다)의 개념처럼 내면 깊은 감격이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표현입니다.

또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하니”라는 구절은 앞선 2절과 연결되며, 반복을 통해 그 사랑의 강도와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포도주는 유대 문화에서 잔치

와 안식, 기쁨의 상징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진정한 만족임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는 표현은, 사랑의 주체이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공동체의 화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모함과 경외심이 따라오는 이유를 이 구절이 보여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내실로, 은밀한 교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깊고, 그의 이름은 향유보다 더 향기로우며,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에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 1: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구절은 신부가 자신의 외적 모습에 대한 자각과 동시에, 내면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는 말은 단순한 외모의 묘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아를 회복한 영혼의 선언입니다.

히브리어로 “검다”는 단어 <쉐호라>는 태양에 그을려 진하게 탄 피부를 의미하며, 이는 유대 광야나 노동의 현장에서 외부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흔한 특징이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햇볕에 그을려 검게 되었음을 숨기지 않지만, 그 검은 모습조차도 ‘아름다움’으로 선포합니다. 이 대조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지를 보여 줍니다.

“게달의 장막”은 아라비아 북부 유목민 게달 족속이 사용하던 거친 염소털로 만든 검은 천막을 말합니다. 이는 외적으로는 투박하고 수수하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한 구조를 지녔으며, 유목 생활에 꼭 필요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고 표현함으로써, 비천하고 소외된 존재였던 과거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기능성과 충실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는 전

환은 극적입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왕궁의 장막으로서 가장 화려하고 존귀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인 모습이나 과거의 상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시며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사 60:15]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라는 약속과 맥을 같이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피부색이 부와 신분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에서 쉬며 하인들의 도움을 받는 부유한 여성은 피부가 하얗고, 밖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은 햇볕에 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그런 문화적 편견을 뒤엎습니다. 신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은 존재입니다.

초대교부들은 이 구절을 교회에 적용하여, 죄와 고난으로 인해 얼룩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된 교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리겐은 “교회는 겉으로는 핍박당하고 고난받지만, 그 속은 정결

하고 거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과거, 소외된 자리, 외면당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아 1:6] 내가 햇볕에 쪼아서 검으니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구나 내 자신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구절은 신부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외면적 열심 속에서 잃어버린 내면의 현실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앞절에서는 “검으나 아름답다”고 선언했던 신부가 이제는 왜 검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고달픔, 타인의 억압,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햇볕에 쪼아서 검으니”는 단순히 피부가 탔다는 묘사 이상입니다. 햇볕은 고대 히브리 시에서 시련과

노출, 거칠고 혹독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인생의 고난, 억압, 반복되는 수고와 피로 속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구나”라는 표현은 신부가 가족 안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혈연적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 갔던 사건이나, 다윗이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는 종종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억압받는 자리에서 불리움을 받습니다.

“포도원지기를 삼았구나”는 타인의 일에 몰두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포도원은 히브리 시에서 삶, 사역, 사명, 하나님께 맡겨진 땅을 상징합니다. 다른 이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정작 “내 자신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진실을 반영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외적 책임에 쫓기다가 정작 내 내면은 돌보지 못하고, 주님과

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상태-이것이 바로 신부의 탄식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키다'는 <사마르>는 단순히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성껏 돌보고, 마음을 쏟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부는 지금 자신의 내면, 곧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음을 슬퍼합니다. 이는 곧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친 상태와도 같습니다.

교부 오리겐은 이 구절을 묵상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다가 자신은 주님 앞에서 말라가는 교사들을 주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역이나 관계, 의무에 밀려 자신의 포도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보다 먼저 너 자신을 돌보아라.

너의 포도원-곧 너의 영혼, 너의 기도, 너의 예배, 너의 사랑-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방으로, 내면의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 1:7]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 먹이는 곳
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료
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
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의 염소 새끼를 먹일찌니라

이 구절에서 신부는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의례가 아닌, 살아 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깊은 갈망으로 질문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레아하브 나프쉬’<레아하브 나프쉬>로, 감정적인 애착이 아닌 전 존재를 다해 갈망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신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어디서 쉬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며 살아가고 싶은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은 유대 유목민의 전통에 따라 목자와 양 떼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늘에서 함께 쉬던 장소를 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바위나 나무 그늘이 그 쉼의 공간이었고, 이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사용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지치고 무거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는 초청으로 읽혀야 합니다.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라’<하라>에서 유래한 말로 ‘숨기다’ 혹은 ‘감추다’는 뜻입니다. 당시 창녀들이 얼굴을 가리는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와 관계 밖에서 방황하는 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잃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남는 상태에 대한 경계의 표현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 밖에 있는 신앙인의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간절한 질문에 대해 신랑 되신 주님은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는 호칭은 히브리어 ‘아파 바나심’<아파 바나심>으로,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말합니다. 신부가 자신을 “검다”고 낮추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어여쁘다”고 칭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의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전한 갈망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는 히브리어 ‘이크베 하출 온’<이크베 하출온>으로, 실제 유목민의 길잡이 표현이자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선진들, 경건한 전통,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히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권면처럼, 우리는 신앙의 길을 새롭게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찌니라”는 말씀은 두 가지 적용을 줍니다. 첫째, 말씀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목자의 장막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명령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일상과 사명 속에서 주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 1: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 1: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
미로 아름답구나

[아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장면은 주님이 신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1:9] 내 사랑
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
는 표현은 단순한 애정 어린 칭찬이 아닙니다. 고대
제국의 왕실 상징을 빌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존귀한 사명을 위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
절입니다. 히브리어 ‘수사’<수사>는 전투용 암말을
의미하며, ‘리크베 파로’<리크베 파로>는 ‘바로의 병
거들’을 뜻하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왕권을
대표하는 전차부대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바로의 병거는 단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개
선행렬의 중심에 서는 영광의 상징이었고, 이를 이
끄는 말은 가장 아름답고 용맹한 존재로 선택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외적으로는 아무
런 화려함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
신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병거의 준마와 같은 존재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순교자 선자메이 자매는 가혹한 고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병거를 끄는 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를 승리의 전장으로 바꾸시며, 악한 자를 통해 당신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아 1:10]에서 “네 두 뺨은 땀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라고 하신 말씀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땀은 머리털’은 히브리어 ‘타루짐’<타루짐>으로, 무질서함을 벗고 정돈되고 헌신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목의 구슬 꿰미’는 히브리어 ‘하루짐’<하루짐>으로, 언약의 장식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신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내면의 아름다움, 곧 정결함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동남아 무슬림 지역의 한 선교사님에게서 현지인이 느낀 평온함과 향기로운 기운이 바로 ‘기도로 뺨을 단장하고 말씀으로 목을 꾸민’ 신부의 모습입니다.

[아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는 말씀은 매우 특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삼위적 사역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그분의 공동체가 함께 신부를 단장

시키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어 '자하브'〈자하브〉(금)은 신성을, '케세프'〈케세프〉(은)은 구속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리겐은 “하나님은 신부를 위해 그분의 본성(금)과 은혜(은)로 꾸미신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모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입하시는 장식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붙들고 말씀으로 세우며 서로를 믿음으로 장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 1:12]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드 향기가 풍겨 나도다

[아 1: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락 주머니요

[아 1: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 세 구절은 주님과 성도 사이의 깊은 교제, 곧 예배와 임재의 향기를 묘사합니다. “[아 1:12]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드 향기가 풍겨 나도다”에서 ‘왕의 상’은 히브리어 ‘미슈카브’〈미슈카브〉로, 왕의 내실 곧 임재의 장소이자 밀실을 의미합니다. ‘나드’는 히브리어 ‘네르드’〈네르드〉로, 제사장층이 사용

하던 귀한 향입니다. 이는 요 12장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던 장면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내면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힌두 극단주의자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기도했던 에스더 자야람에게서 난 향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1:13]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요”라는 표현은 주님과 밤새도록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를 묘사합니다. ‘몰약’은 히브리어 ‘모르’<모르>로, 성막 기름에 들어가는 향료이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사용된 예물입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며, 신부는 그 아픔조차 향기가 되는 깊은 예배의 삶을 가슴 가까이에 두며 살아냅니다.

[아 1:14]에서는 그 사랑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송이”로 비유합니다. 엔게디는 유다 광야 한복판의 오아시스로, 생명과 기쁨의 지역입니다. 고벨화는 히브리어로 ‘페레크’<페레크>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의 임재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회복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침상에서 나드 향을 피우고, 고난 가운데서도 몰약처럼 주님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머무름으로 증명되고, 임재는 내면의 향기로 나타납니다.

[아 1: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절은 신랑 되신 주님의 칭찬이 '야파 야파' <야파 야파>로 반복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는 순결함과 충성, 부드러움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어 '요나' <요나>는 비둘기이자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애칭입니다.

비둘기는 제사법에서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예배의 상징이었습니다(레 5:7). 주님은 신부의 시선과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비둘기 같다”고 하십니다. 눅 11장에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한 짝과만 결합하는 습성이 있듯이, 주님은 주님께만 고정된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공산 정권하에서 14년간 옥중 생활을 한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와 사브리나 사모의 시선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께 고정된 시선은 삶을 정결하고 신실하게 이끁니다.

[아 1: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아 1: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 구나

이제 신부가 화답합니다. “[아 1: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에서 ‘화창하다’는 히브리어 ‘나임’<나임>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에서 ‘침상은 히브리어 ‘에레스’<에레스>로 은밀한 교제 장소이며, ‘푸르다’는 생명력과 평안을 상징합니다(시 23:2). 김익두 목사의 부인 박마리아 사모가 조용히 옆드려 기도하던 자리는 수많은 이들이 위로를 체험한 ‘푸른 침상’과 같았습니다.

[아 1:17]에서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 구나”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의 공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백향목(‘에레즈’<에레즈>)과 잣나무(‘브로쉬’<브로쉬>)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사용된 견고하고 향기로운 재료입니다(왕상 6:15).

신부는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 공간이 주님이 친히 구조를 세우신 임재의 거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터든 식탁이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침상은 푸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백향목처럼 견고해지고 잣나무처럼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침상에서 시작된 사랑은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르게 만듭니다.

아가서 2 장 =====

[아 2: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
다

[아 2: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
합화 같도다

[아 2:1]에서 신부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수선화’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바젤렛’<하바-젤렛>은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식물의 이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꽃은 사론 평야에 자생하는 작은 꽃으로, 겉으로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은은한 향기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합화’ 역시 히브리어 ‘슈산나’<슈산나>로, 단지 장식용 꽃이 아니라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순결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신부는 지금 자신을 너무나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신랑은 그녀를 바로의 병거, 향유, 몰약, 고벨화 등으로 높이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

을 낮추며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겸손을 가장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된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들꽃과 같지만, 주님의 눈에 나는 선택된 존재입니다”라는 신앙인의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미국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은 50세가 넘는 나이에 아무도 반기지 않는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녀는 신분 낮은 여인들, 천민 계급의 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며, “나는 이 땅의 들꽃이어도 좋다. 주님이 나를 여기 두셨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피어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을 세웠고, 오늘날 이화여대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약한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빛나는 꽃이었습니다.

그에 이어 [아 2:2]에서 신랑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히브리어 ‘호아힘’<호아힘>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황무지나 길가에 자라

는 잡초처럼 여겨졌던 식물입니다. 신랑은 지금 신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높여줍니다. 다른 여인들이 많을지라도 너는 그들 가운데서 ‘백합화’처럼 전혀 다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성도와 육신의 문화를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 2: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백합화’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론의 들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오직 하나뿐인 백합화입니다.

[아 2:3]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의 기호로구나

이 두 절은 신부의 영적 고백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안전함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

2:3]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늘’이 의미하던 절대적인 보호와 안식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어 ‘첼’<첼>은 ‘그늘, 은밀한 보호, 안식처’를 뜻하며, 시편 기자도 “[시 91: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사과나무’-히브리어 ‘타푸아흐’<타푸아흐> 아래 앉았다고 고백합니다. 사과나무는 향기가 풍부하고 열매가 달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귀한 나무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쉼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일본 도쿄의 미즈노 나오키(Mizuno Naoko) 상담가는 깊은 번아웃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사역의 이름을 “셸터 그레이스 Shelter Grace”-그늘의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도다”는 구절은 유대 전통에서 말씀과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체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렘 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했듯이, 체험된 복음의 달콤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2:4]는 고백의 정점을 이룹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의 기호로구나.” ‘잔치 집’은 히브리어 ‘베이트 하야인’<베이트 하야인>으로 즐거움과 회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내 위의 기호로구나”에서 ‘기호’는 히브리어 ‘대골’<대골>로, 승리의 깃발 혹은 소속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은 나치 수용소에서조차 “내 위에 걸쳐 있는 깃발은 증오도, 죽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네 위에 있다. 내가 너의 깃발이다.”

[아 2: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깊었음이니라
[아 2: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신부는 [아 2:5]에서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깊었음 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병’은 히브리어 ‘홀랏 아하바’<홀랏 아하바>로, 주님 임재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주는 영적 열병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환상 중 임재를 경험한 후 “[단 10:8]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신부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요청합니다. ‘건포도’(‘아쉬이쉐이’<아쉬이쉐이>)는 강장용 음식이며, ‘사과’(‘타푸아흐’<타푸아흐>)는 해열제로 쓰였습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무너진 내면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멜타 와티(Melta Wati) 자매는 금식 중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열병을 앓으며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우리를 녹여 죽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이 지나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아 2: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는 주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스몰’<스몰>(왼쪽)과 ‘

야민'<야민>(오른쪽)의 대칭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열병에 빠진 신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머리를 받쳐주시며 몸을 감싸 안으심으로 그 병을 '포옹'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악해지십시오. 눈물 나도록 사랑할 때 그분의 손이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2:7]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찌니라

이 절은 신앙의 타이밍과 질서에 대한 핵심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부탁한다'는 '히쉬바티'<히쉬바티>이며, 이는 '엄숙하게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누려야 함을 선포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순결함과 민감함, 조심스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아무 때나 이끌려 함부로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은 깨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은혜이다.” 요르단의 사미르 엘리야

(Samir Eliya) 전도사는 강한 임재를 구하던 중 “나의 사랑은 자극이 아니라 교제이며, 감정이 아니라 연합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기다림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열어야 할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기다려야 할 길입니다. 뜨거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2:8]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 2: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구절은 신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등장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아 2:8]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는 히브리어 ‘콜 도디’로,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는 예배 중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의 고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일 수 있으며, 신부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라고 외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지 소리

로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라는 구절은,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과 거리감을 뛰어넘고 신부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산’은 히브리어 ‘하림’, ‘작은 산’은 ‘게바오트’로, 고난과 장벽, 영적 장벽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님의 전능하심이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구약에서 산은 하나님의 현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시내산, 갈멜산, 시온산 등).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신부를 만나기 위해 그 높음을 기꺼이 뛰어넘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향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회복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산을 넘어’ 달려오고 계십니다.

[아 2:9]에서는 그분의 모습이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히브리

어 '차비'와 '아얄'은 둘 다 민감하고 날렵하며, 매우 조심스러운 동물입니다. 이 표현은 주님이 조심스럽고 애뜻하게 신부를 바라보시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임재하시는 방식이 부드럽고도 정중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억지로 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장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의 말씀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벽’은 히브리어 ‘코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감정적 장애, 영적 침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벽 너머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살 틈 사이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가 담을 쌓은 그 벽 너머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떠오르는 간증은, 한국 초창기 기독교 부흥운동 중 회개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 회

개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이 담장 밖에서 내 방 안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시선을 거두신 적은 없었다”고. 그리고 그는 한국 최초의 부흥회를 인도하며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그분은 벽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산과 장애물, 죄책감, 수치심이 주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벽을 넘지 않으시고, 창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그 벽을 허물고 문을 연다면, 주님은 달려와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 2: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구절은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은밀한 곳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계절, 새로운 동행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사랑의 명령은 히브리어 원어 ‘쿰 라크’(일어나라), ‘레키 라크’(가자)로, 명령형이지만 강압적인 어투가 아닌 애정 깊은 손짓 같은 부드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음성은 신부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단지 “일어나라” 하시지 않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만 던지고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이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관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 2:11-13]은 마치 ‘사랑의 계절’이 온 것을 선언하는 예언적 시처럼 펼쳐집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에서 ‘겨울’은 히브리어로 ‘하호레프’, 즉 생명 없이 움츠러든 시기, 침묵의 시기, 기다림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비가 그쳤다”는 것은 회복과 새 계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자연의 변화는 단지 풍경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

적 계절의 전환을 뜻합니다. 무너졌던 관계, 식어버린 열정, 길어졌던 침묵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피어날 때라는 신호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라는 구절은, 말씀과 예배,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소생되는 계절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봄이 도래하면, 첫 번째 포도나무의 싹이 트는 시점부터 절기와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의 이 초청은 단지 함께 걷자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계절, 회복의 계절로 들어오라”는 명백한 초청입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는 표현은 앞서 [아 1:15]에서 신부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신부를 닮은 영적 노래가 땅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비둘기는 희생 제물, 순결, 성령의 상징으로도 해석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은총의 소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말은 성령의 열매

와 은사가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의 상징이었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지금 신랑은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신부가 일어나 함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장면은 실존 간증에서도 종종 반복됩니다. 20세기 중반 평양 산정현 교회의 기도회에서 사용된 한 노파의 일기장에는, ‘봄처럼 주님의 목소리가 찾아왔다’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병치레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일어나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사역자로 섬겼다고 합니다. 사랑은 계절처럼 찾아오지만,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나간 겨울을 붙잡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산을 넘으셨고, 꽃은 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쳐 있었고, 기도가 식어 있었고, 예배가 메말랐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그 음성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사명 앞으로.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뻗어 있

고,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 2: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가장 깊고 친밀하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 장소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숨겨진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험하고 고립된 곳, 다른 이들과 단절된 듯한 곳,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 고난이 깃든 자리를 뜻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바위 틈’은 ‘하그베 하셀라’라고 하며, 직역하면 ‘바위가 갈라진 틈, 몸을 숨길 수 있는 좁고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위협이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숨는 장소로 자주 사용됩니다(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를 바위 틈에 숨기셨던 장면, 출 33:22). 또한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로 ‘세테르 함마드레곳’이라 하는데, 이것은 높고 험한 바위지대에서 경사진 계단이나 절벽 아래에 숨겨진 은밀한 구석을

뜻합니다. 마치 사람이 스스로는 오르거나 나올 수 없는 고립된 장소처럼, 깊은 외로움, 무기력, 또는 침묵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네 목소리를 들려다오.” 이것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목받는 자리, 강하고 찬양받는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외롭고 무너지고, 어쩌면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그 깊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업적을 보고 가까이 오지만, 주님은 우리가 움츠리고 숨을 때, 외롭고 낮아졌을 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나의 비둘기야...”라는 호칭은 앞서 [아 1:15], [아 2:12]에서 이미 사용된 애칭으로, 순결과 신실함, 부드러운 영혼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지금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숨은 듯하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주님은 그녀를 ‘나의 비둘기’라 부르십니다.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주님의 낯을 피했을 때의 장면과 대조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여다오. 네 소리를 들려다오.”

히브리어로 ‘얼굴’은 ‘파님’, ‘소리’는 ‘쿨’인데, 둘 다 성경에서는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나 응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에게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의 외모나 성취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태든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배 중의 고백일 수도 있고, 고난 중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얼굴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소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가 작고 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를 ‘부드럽다’고 하십니다. 이 ‘부드럽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라브’로, ‘기쁘게 들리는’, ‘즐거운 음악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고백과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는 노래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던 한 여인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주님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큰 사랑을 보였다” 하셨고, 그녀의 침묵 속 고백은 주님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바위 틈 같고, 낭떠러지처럼 위험하고 어두운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음성을 들려다오. 너는 여전히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숨지 말고, 드러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속삭이십시오. 당신의 작은 기도, 낮은 한숨조차도 주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아 2: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

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 라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계절을 맞아 함께 나아가려 할 때, 주님은 경계해야 할 대상을 지목하십니다.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히브리어로 '여우'는 '슈알'인데, 이들은 포도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와 연약한 꽃들을 갉아먹어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혹은 우리가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님은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는 죄의 습관들, 작은 원망, 사소한 거짓말, 혹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게으름을 상징합니다. 거대한 장벽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지만, 작은 여우는 방심한 틈을 타 우리의 영성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는 구절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때 여우가 꽃을 갹아먹으면 결실을 볼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시 작될 때, 사역의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마귀는 '작은 여우'와 같은 시험을 통해 그 은혜의 통로를 막으려 합니다.

이 구절에서 떠오르는 영적 교훈은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펔전의 권고입니다. 그는 "커다란 죄 는 작은 죄의 허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며, 우 리 마음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매일의 성찰이 필 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결국 포도원 전체가 황폐해집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남몰 래 즐기는 작은 습관, 형제를 향한 작은 미움, 예배에 대한 작은 나태함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방 치하지 말고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결단하고 그 작은 죄의 뿌리를 뽑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포도원 은 아름다운 향기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 입니다.

[아 2: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는도다

[아 2:17]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나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 2:16]의 고백은 아가서 전체를 대표하는 선언 중 하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도디 리, 와아니 로’- 그가 내 것, 그리고 나는 그의 것이라는 의미로, 완전한 상호소유의 언약적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인의 감정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신부 사이의 상호적 언약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약 성도에게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고백했고, “[고전 6:19-20]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고백 안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표

현이 이어집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 이는도다.” 이 표현은 앞서 [아 2:1]에서 신부가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 고백한 것과 연결됩니다. 즉,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곧 순결하고 신실한 영혼들 가운데서 목자로서 돌보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신부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한 그녀와 함께 거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사역 하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깊은 영적 연합의 선언입니다.

[아 2:17]은 그런 확신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기다림과 긴장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곧 시간이 늦기 전에, 혹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라는 뜻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히브리어 ‘베데르 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베데르’는 ‘갈라놓다, 자르다, 조각내다’는 뜻을 가진 ‘바타르’에서 유래했으며,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둘로 찢개어 그 사이를 지나던 고대 히브리 언약 예식을 떠올리게 합니다(창 15:10, 17). 이곳은 곧 언약이 세워진 장소, 다시 만남이 성취될 자리를 의미합니다.

신부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노루나 사슴처럼 자유롭고 부드럽게, 언약의 산으로 나에게 돌아 오십시오.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 영혼이 식기 전에 다시 와 주십시오.”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두 감정, 즉 확신과 기다림, 기쁨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분이 내 것”이기 전에, “내가 그분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백합화 곁에서, 곧 순결한 영혼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려면 백합화와 같은 순결과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날이 저물기 전”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데르 산” 곧 언약의 자리에서 그분을 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실존 간증으로는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 백작’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는 이제 그분의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아가서 3 장 =====

[아 3: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았어도 발견치 못하였노라

[아 3: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거
리와 광장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장면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침묵
의 밤, 사랑하는 이가 부재한 시간을 경험하는 신부
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아 3:1] 내가 밤에 침상에
서…”의 ‘밤’은 히브리어 <발레일롯>, 복수형으로 ‘밤
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단지 하루 밤이 아니라 지
속된 어두움, 반복되는 고독, 오래된 기다림의 시간
을 상징합니다. 침상은 쉼과 안식의 장소였지만, 지
금은 사랑하는 이가 없기에 더 깊은 외로움의 자리
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등장
하며 히브리어로 <도디>-즉 ‘나의 연인, 나의 주님’
이라는 애정과 언약이 담긴 표현입니다. 신부는 지
금 단순히 감정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갈망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도와 예배,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아 3:2]에서는 신부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 히브리어 <아쿰 나>, 이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영적 의지를 동반한 일어섬,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침상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성안과 거리와 광장’은 고대 도시 예루살렘의 구조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곧 자기 안의 신앙 안주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현실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낭만적 사랑의 추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찾는 자, 곧 광야에서나 밤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25-26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 3: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애 3: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장면과 흡사한 실존 간증은 한국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의 일기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1909년, 그는 제주 선교 중 극심한 반대와 고립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듯한 ‘영적 밤’을 겪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을 부르되 대답이 없었고, 밤마다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분이 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몇 주 후, 그는 한 산골 예배당에서 다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며 부흥의 씨앗이 제주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랑은 침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반복되는 어둠과 기다림 속에서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는 것. 다시 찾는 것. 침상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곳에서, 성 안 거리와 광장 한복판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 3:3]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 3:4]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 3:3] 신부는 침상에서 일어나 성안, 거리, 광장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이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히브리어로 <쇼메림>-즉 '파수꾼, 성을 지키는 자들'을 뜻합니다. 고대 예루살렘에서는 밤에도 파수꾼들이 성 안을 순찰하며 질서와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 신앙 공동체 안의 인도자, 또는 내면의 양심과 영적 경계심 등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질문에는 정서적 갈급함과 영혼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의 임재를 찾을 때, 지도자나 공동체, 혹은 주변 환경에 기대어 답을 찾으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들은 신부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인간적 구조, 조직, 전통, 혹은 외적인 의식이 내 영혼의 공허를 대신 채울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 3:4] 신부는 파수꾼들을 지나쳐 “조금 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조금 가다가”-히브리어 <멧 메앗 셀라브>-는 아주 짧은 거리, 미세한 순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은 자에게, 주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 내 어머니 침실로 모셔 들였노라”-이 구절은 다시 만난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는 신부의 간절함, 그리고 이 만남을 가장 내밀한 영혼의 자리, 곧 삶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모시고 들어간다는 고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의 집, 침실’은 생명의 시작, 존재의 근원,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이제 외적인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실존 간증으로, 미국 19세기 부흥운동가 찰스 피니(Charles Finney)의 회심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탐구하다가, 어느 날 밤 숲속에서 홀로 기도하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이 내 존재 안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이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방에 들어오셨다”고 고백했고, 그 만남이 그의 평생의 사역과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만남은 외적인 도움을 넘어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영혼에게 주어집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은, 삶의 중심-즉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주님을 초대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말고, 내 삶의 전부로 모셔 들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답답함과 부재의 시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방에서-인생의 근원에서-일어납니다.

[아 3: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찌니라

이 구절은 신부가 사랑의 깊은 체험과 회복을 경험한 이후, 다시 감정과 시간, 관계에 대한 경계와 절제의 언어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라는 표현은 마치 경험 많은 여인이 아직 사랑의 초입에 있는 이들을 향해 주는 지혜의 충고처럼 들립니다. 이제 신부는 단순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만난 후 지켜내야 할 자리로 들어선 영적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표현은 아가서 [2:7]과 동일하게, 매우 엄숙한 서약과 같은 요청을 나타냅니다. 노루와 사슴은 히브리어로 각각 <차비>와 <아알>이며, 민감하고 부드러우며,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를 상징합

니다. 고대 유대 전통에서는 이 동물들이 거룩하고
조심스러운 감정의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섬세하고 깊으며, 억지
나 조작이 아닌,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는 사랑입니
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니라” -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사랑이 깨어나기
를 원하기 전에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때, 성령
의 감동이 주어지는 타이밍, 감정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신앙과 감정, 사명과 만남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감정의 폭주나 성급한 움직임에 경계하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종종 감정이 뜨거울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침묵의 시간을 못 견디고 조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성숙을
요구합니다. 기도 응답, 사역의 타이밍, 만남과 관계,
심지어 성령의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주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이 신앙을 앞질렀던 시절을 후회하며, 하나님이 ‘때에 맞게 오셨다’는 고백으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삶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사랑은 감정의 열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절제, 타이밍의 분별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준비된 내면을 보시고 사랑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은혜와 관계는 억지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급하게 사랑을 깨우지 않게 하소서. 감정보다 말씀을, 흥분보다 분별을,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사랑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흔들

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신부로 설 때입니다.

[아 3:6]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이고

[아 3:7] 불찌어다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인이 둘러쌌는데

[아 3: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아 3: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아 3: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졌구나

[아 3:11]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씩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 되신 왕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웅장한 행렬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를 향한 혼인 잔치의 예표이며, 신부된 자의 준비된 영

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아 3:6] 이는 광아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 같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었구나”라는 말씀은, 마치 누군가의 장엄한 행렬을 먼발치에서 목격하는 듯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광아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영혼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낮추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신 8:2). 여기서 ‘연기 기둥’은 히브리어 <아쉬안>으로,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성소에 가득 찼던 향연과도 연결되며(출 30:8),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상달됨을 의미합니다.

몰약<모르>과 유향<레보나>은 성막의 분향 제물에 반드시 포함되었던 재료이며,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신전 제의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 장면이 단지 지상 혼인의 기쁨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중보와 기도의 향기가 응축된 영적 사건임을 보여 줍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장면을 가리켜

“하늘의 예비가 땅 위로 내려오는 순간”이라 표현하며, 이 행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를 향해 오시는 성육신과 재림의 예표라 설명했습니다.

“[아 3:7-8]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이 구절은 왕의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들을 묘사합니다. 숫자 ‘60’은 히브리 사상에서 완전함, 충분함을 상징하며, 열두 지파와 다섯의 곱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은혜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칼을 잡고 밤의 두려움에 대비한 전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권면처럼, 신부의 영혼과 여정을 지키는 영적 수호자들의 상징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환상처럼, 거룩한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하늘 군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르도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전투태세를 갖춘 자다. 사랑은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를 향한 주님의 행렬은 영광의 길이면서 동시에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 3:9-10]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사랑으로 꾸몄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패하지 않는 나무로, 솔로몬 성전의 주요 재료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왕상 5:6). 은은 히브리어 <케세프>로 구속과 정결, 금<자하브>는 신성, 자색은 왕권과 존귀를 나타내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준비된 장식의 예표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사랑으로 꾸몄도다”입니다. 히브리어 <아하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언약적 사랑, 곧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자들이며, 그 사랑은 성도의 내면과 공동체를 덮는 가장 강력한 장식이 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주께서 친히 단장한 신부”(계 21:2)로 묘사하며, 그 단장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름다움은 장식일 뿐이고, 사랑이 있는 단장은 성결한 예배가 됩니다.

“[아 3:11]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는 구절은 절정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왕의 어머니는 단순히 가족적 의미를 넘어서, 왕권의 계승자이자 예언적 언약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장면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권의 승인과 축복, 혈통의 순결함을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왕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권, 혼인을 통해 이뤄질 언약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많은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등장하고, ** “[계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대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향하는 종착지, 즉 신랑 되신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보여주는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기다림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혼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결과 기도로 단장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가마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깨어 말씀의 칼을 허리에 찼는지, 은과 금, 자색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꾸며진' 내면을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왕관 쓰신 모습 앞에,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아가서 4 장 =====

[아 4: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아 4: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 4:3]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단순한 외모의 묘사를 넘어, 신부를 향한 절대적 애정과 깊은 감탄을 쏟아냅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히브리어 <아페 아페>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절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극단적 찬사입니다. 이는 창조주가 그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하신 첫 번째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창 1:31).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곧 신부된 우리는 주님의 눈에는 너무도 사랑스럽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너울 속의 눈이 비둘기 같고”라는 표현은 깊은 순결

함과 부드러운 투명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며, 순결, 충직, 그리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 했습니다. 신부의 눈이 것처럼 비둘기 같다는 것은, 그녀의 내면과 시선이 얼마나 정결하고 신랑을 향해 고요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성령이 예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처럼(마 3:16), 이 눈은 영적인 고요와 사랑의 헌신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시선은 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사르트르는 "타자의 시선은 나를 객체화시킨다"고 했지만, 이 사랑의 눈길은 우리를 억압하는 시선이 아닌,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시선입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신부의 비둘기 같은 눈은 그런 사랑의 시선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머리털이 길르앗 산의 염소 떼 같다”는 말은 언뜻 보기엔 이질적이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검고 윤기 있는 염소 떼가 구불구불 산 언덕을 따라 흘러내리는 장면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털’은 히브리어 <샤아르>이며, 성경에서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15에서

여인의 머리를 ‘그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이는 신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머리카락은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자아상의 중심 요소로 인식됩니다. 상담 치료에서 트라우마 이후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염색하는 행동은 자기 통제와 회복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부의 머리털은 그대로 보존된 채, 흘러내리는 염소 떼처럼 유려하고 살아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존귀함을 지켜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는 먹는 기능과 연결되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라는 표현은, 깨끗함과 정결함, 말씀으로 훈련되고 정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각 싹태를 낳았다는 것은,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하며 불임이 없다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입술은 기도와 고백의 순결함을, 그리고 피로 맺어

진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홍색 실”은 히브리어 <슈니 토엘렛>으로, 성막 휘장과 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붉은 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속과 거룩의 상징이기도 하며, 신부의 입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석류는 유대 전통에서 613개의 씨앗이 있다고 여겨져 율법의 완성을 상징했고, 또한 풍요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너울 속에 가려진 뺨이 석류 한 쪽 같다는 것은, 신부의 얼굴이 정결하고도 생명력 있는 사랑의 열매를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석류는 감각적으로도 다층적인 존재로, 바깥은 단단하고 안은 풍성합니다. 이는 내면의 진실과 외적인 경건이 조화를 이루는 신자의 영적 성숙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영혼의 눈이 얼마나 그분을 향해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씹는지,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고, 삶의 뺨에는 어떤 열매가 배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말과 열매를 성령 안에서 다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이며, 영혼의 회복입니다.

[아 4:4] 네 목은 번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 4: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
태 노루 새끼 같구나

신랑은 이제 신부의 목과 가슴을 묘사하며, 그녀의 품격과 생명력을 찬양합니다. “네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라는 구절은 단순한 신체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신앙적 견고함과 당당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미그달 다윗>-다윗의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 남서쪽에 위치했던 실제의 방어 요새로, 왕국의 위엄과 강인함을 상징하였습니다. 신부의 목이 그러한 망대 같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단단하며, 영혼의 품격이 위엄 있게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목은 성경에서 ‘의지’와 ‘결단’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기 10:15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이라 할 때처럼, 이는 항복과 저항, 결심을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신부의 목이 높이 세워진 망대처럼 묘사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과 위엄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메

시지를 줍니다. 믿음은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똑바로 세워진 영혼의 기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는 표현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방패는 히브리어 <션>으로, 방어뿐 아니라 명예와 전리품, 전쟁의 기억을 의미합니다. 일천 개의 방패는 단순한 수치의 과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장된 보호와 승리를 상징하며, 다윗의 왕국과 같이 완전한 방비를 갖춘 존재로서의 신부를 묘사합니다. 이는 신부의 품격이 단지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거쳐 얻은 명예와 믿음의 역사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어지는 [아 4:5]에서 신부의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라 찬양됩니다. 히브리어로 ‘백합화’는 <슈산>, 순결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성전 기물과 찬송시에도 자주 언급되는 꽃입니다. ‘쌍태 노루 새끼’는 연약함과 사랑스러움, 순결하고 고요한 생명의 시작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신부의 유방은 단지 생물학적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사랑의 품, 곧 양육과 희생의 상징으로도 이해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젖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베드로전서 2:2에서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듯, 말씀과 성령의 영양분을 품은 존재가 바로 신부이며, 신랑은 그 유연하고 따뜻한 품에 안식을 느낍니다. 쌍태라는 표현은 성령의 열매가 균형 있고 조화롭게 맺히는 성숙한 신앙의 표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어머니의 품, 즉 따뜻한 유방에서 처음으로 사랑과 수용을 경험합니다. 존 볼비(John Bowlby)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안전한 애착은 어릴 적 수유와 양육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평생의 정서 안정성과 연관됩니다. 신부의 품은 곧 안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의 근원임을 시사하며, 이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져야 할 치유적 역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목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내 안

에는 수많은 영적 싸움의 흔적과 방패들이 걸려 있는가? 또 내 품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생명을 품어주는 백합화 가운데의 젓가슴 같은 자비의 품인가? 하나님은 신부를 향한 이 찬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적 품격과 생명력을 지니길 원하십니다.

[아 4:6]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 4:7]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시간의 묘사가 아니라, 깊은 영적 상징으로 가득 찬 사랑의 선언입니다. “날이 저물고”라는 구절은 단순한 저녁이 아닌, 삶의 여정 속에서 어둠이 찾아오기 전, 즉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림자’는 자주 죽음이나 고난, 유혹의 세력으로 묘사됩니다 (시 23:4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운 시간이 오기 전에, 신랑은 신부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는 표현은 사랑의 장소로의 초청임과 동시에, 제사와 헌신의 장소로의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몰약<모르>과 유향<레보나>은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 분향 향료로 등

장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희생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산들은 예배의 장소이며, 고요한 교제의 자리이며, 신랑과 신부가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는 성소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명확한 도전이 됩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곧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찾고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사랑은 때로 미루면 기회가 지나가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2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도, 예배의 결단도,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 4:7]에서 신랑은 다시 한 번 감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히브리어 <엔 바흠 움>-“흠이 없다”는 이 표현은 제사에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는 신부가 정결하고, 성별되었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준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5:27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정결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낸 순전한 마음과 전적인 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는 이제 완전함을 입었고, 신랑은 그런 그녀를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십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이 절대적인 수용과 사랑의 선언은 신부의 존재를 회복시키며, 자존과 소명을 일깨워주는 근원적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주님의 시선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때에도, 주님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 4:8]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mana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아 4: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

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두 절은 신랑의 애끓는 초청과 깊은 감정의 고백
으로 이어집니다. [아 4:8]에서 신랑은 신부를 고립
과 두려움의 상징인 험준한 산들에서 불러내십니
다.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이 지명들은 실
제로는 우뚝 솟은 고지대이며, 성경에서 종종 혼란
과 위험, 이방 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곳은 웅
장하지만 외로운, 고립된 신앙인의 상태를 암시합니
다. ‘사자 굴’과 ‘표범 산’은 실제의 위협뿐 아니라 영
적 전투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곳에서 혼자
남겨진 신부를 향해,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이 초청은 연약한 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명령이 아
니라, 동행의 언약을 전제로 한 부드럽고도 강한 사
랑의 외침입니다.

[아 4:9]에서는 이 초청이 단지 신부의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랑 자신이 얼마나 깊이 신부에게 매
료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는 표현은 감정의 폭발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라
바브>는 원래 전쟁에서 성을 무너뜨리다, 함락시키

다는 의미를 가지며, 여기서는 신랑의 마음이 신부에게 '함락당한' 상태로 묘사됩니다. 한 번의 눈빛, 작은 장식 하나도 주님의 심장을 움직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정성, 순전한 눈빛, 성결한 삶의 표현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은 시선과 물리적 표현이 관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눈빛은 단지 시각적 접촉을 넘어, 상대의 내면을 읽고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시선'-즉, 신앙의 방향성과 진심 어린 태도-는 그분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인간이 '그것'이 아닌 '너'로 대상과 마주할 때 참된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로 대하십니다. 한 존재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부'로 바라보십니다. 신앙이란 결국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자 굴에서, 표범 산에서, 고립의 고지에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기꺼이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의 마음은 이미, 우리의 시선 하나로 움직였고, 우리의 작은 결단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없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하고 싶습니다.”

[아 4: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 4: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두 절은 신랑이 신부의 사랑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찬미하는 장면입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도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정서적 친밀함, 육체적 연합, 영적 언약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묘사되는데, 이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포도주가 기쁨과 축복, 잔치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주님께서 느끼시는 깊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기름은 기름부음과 치유,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신부의 존재는 단지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향기로운 존재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15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향기일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단지 성취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4:11]에서는 신부의 말과 입술에서 꿀과 젖이 흘러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꿀은 <드바쉬>, 젖은 <할라브>로,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억할 때 떠올렸던 풍요의 상징입니다(출 3:8).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같은 영적 풍성함을 나누는 은혜의 말, 곧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

습니다(마 12:34).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는 주님의 향기를 입술로 전하게 됩니다.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라는 표현은 신부의 외적인 삶과 내면의 일치, 곧 그녀의 전인격에서 발하는 거룩한 향기를 나타냅니다. 이는 복음으로 단장된 삶, 성령의 기름부음과 진리의 말씀이 엮여진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향기, 언어와 행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예배, 헌신의 말, 온유한 향기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당신 앞에 향기로 기억되게 하소서.”

[아 4: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 4: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

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아 4: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
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아 4: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
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네 절은 신부의 내면세계, 곧 영혼의 상태를 정원에 비유하며 찬미하는 시적 절정입니다. [아 4:12]에서는 신부를 ‘잠근 동산’〈파르데스 나아룰〉, ‘깊은 우물’〈베에르 사구르〉, ‘봉한 샘’〈마아얀 하툼〉으로 묘사합니다. 이 세 표현은 모두 완전하게 보호되고, 성별되며,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원(paradise)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왕의 정원, 성전의 모형, 에덴의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를 보시며 “너는 에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 ‘동산’은 생명의 회복, 은밀한 만남, 친밀한 연합의 장소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잠근’이라는 표현은 신부의 정절과 구별됨, 성령의 은혜 아래 지켜진 영혼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이 동산은 외부로부터 함부로 드러나지 않으며, 주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은밀한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6:6에

서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신 그 골방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아 4:13-14]은 그 동산 안에 심겨진 영적 열매들을 찬란하게 묘사합니다. 석류나무는 다산과 생명을, 고벨화는 아로마틱한 향기와 정결함을, 나도풀과 침향, 유향과 몰약은 제사장의 향품과 성령의 기름부음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향품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성막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과 향에 등장하며, 이는 신부의 영혼이 예배의 제단이자 거룩한 제사장이 됨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은 향기처럼 본성상 위를 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신부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 곧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 4:15], 이 동산은 고립된 정원이 아닙니다.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는 표현은 내면에서 솟아난 영적 생수가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38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바로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보호받고 단장된 영혼은 자기만을 위한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타인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깊은 통찰을 줍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열려 있는 정원이 아니라, 주님께만 열려 있는 잠근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동산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 각양 영적 은사가 자라고 있어야 하며,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내면이 주님만을 위한 동산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바람은 닫고, 성령의 바람만 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샘에서 생수가 흘러, 주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 4: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4장의 마지막 절은 신부의 응답으로 마무리됩니다. 신랑의 끊임없는 찬사와 부름에 이제 신부가 담대하게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북풍'〈차퐁〉과 '남풍'〈테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서로 다른 계절의 바람을 상징했습니다. 북풍은 차갑고 강하며, 남풍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곧 연단과 위로, 시련과 은혜, 깨어짐과 회복의 양면성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이제 삶의 모든 계절, 곧 모든 바람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녀의 내면은 '동산'이며, 그 동산에 주님의 바람이 불어와 향기를 날리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이나 열매가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모시는 자리로 준비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제 신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거처이자 열매 맺는 동산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깊은 성숙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의 바람은 북풍이든 남풍이든 모두 유익합니다. 고통의 바람도, 위로의 바람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두 거룩한 향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북풍이든 남풍이든, 제 안의 동산에 불어 당신의 향기를 드러내소서. 제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아가서 5 장 =====

[아 5: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
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
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4장이 신부의 헌신적 고백으로 마무리되었다면, 5
장은 신랑의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다시금 관계의 본질
을 상기시킵니다. ‘내 동산에 들어왔다’는 말은 단순
한 접근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과 임재의 회복을 상
징합니다. 이전까지 신랑은 동산 바깥에서 바라보는
자였지만, 이제는 신부가 바람을 불어 동산의 향기
를 날리고, 그 향기 가운데 신랑이 들어오게 된 것입
니다.

신랑은 동산에서 몰약과 향, 꿀과 꿀 송이, 포도주와
우유를 거두어 먹고 마십니다. 이 장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상 앞에서 떡을 먹
으며 교제를 누리던 모습과 겹쳐집니다. 특히 “먹고
마시라”는 초대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 식탁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3:20에서 예수님은 "[계 3:20]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아가서 5:1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는 말은 이제 이 친밀한 교제가 신랑과 신부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초청이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장면은 예배의 깊은 본질,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 곧 성도의 기쁨과 찬양이 된다는 진리를 선언합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 구절에 대해 “성찬의 비밀이 가장 시적으로 암시된 장면”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한 쌍의 연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깊은 연합의 예표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은밀한 교제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동산에 임하소서. 제가 드린 향기 속에서

주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고, 저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하소서. 이 교제가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 5:2] 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히 들었노라 하는구나

[아 5: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아 5: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아 5:5]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이 구절들은 주님과와의 친밀한 교제가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는 표현은 신앙의 두 가지 상태-영적 무감각과 내면의 갈망-사이의 긴장을 묘사합니다. 신부는 육체는 쉬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랑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는 네 겹의 호칭으로 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이는 계시록 3:20의 그림자이며, 하나님은 억지로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우리 안의 문을 여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히 들었노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음을, 밤새도록 문 앞에 서 계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는가?” 이것은 사랑의 게으름이요, 영적 권태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영혼의 게으름은 가장 위장된 절망’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현실의 피곤함과 자아의 안락함에 눌러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신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무’이며, 강한 떨림과 내면의 뒤흔들림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뒤늦게 일어나 문을 열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버렸고, 문빋장에는 몰약의 향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빋장에 듣는구나”라는 표현은 주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흔적과 사랑의 증거가 남아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 우리의 반응은 때로 그 사랑의 시간을 놓치게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영혼이여, 깨어 있으라. 주님의 손길이 문틈을 지나기 전에, 그 향기가 사라지기 전에, 응답하라.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반응하라.”

[아 5: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 5:7]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겹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아 5:8]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
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
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마침내 문을 열었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버
렸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이의 음성 하나만으로도 영혼이 깊이 반응
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어로 ‘혼’은 ‘네페쉬’
로, 인간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기에, 이는 신랑의 말
씀이 신부의 전 존재를 흔들어놓았다는 뜻이기도 합
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고, 찾으려 해도 발견할 수 없
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감추어진 듯한 신앙
의 밤, 깊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성 요한은 이를 ‘어
두운 밤’(Dark Night of the Soul)이라 표현하였습니
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가장 깊이 역사하
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신부는 절망을 안고 성안을 헤맵니다. 그 여정 속에
서 만난 파수꾼들-종교적 체계, 지도자, 심지어는 공
동체-는 그녀를 도와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녀를 때리고 상하게 하고 겉옷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는 교회 내의 제도나 권위가 영혼의 갈망을 진정
으로 돌보지 못할 때 겪는 실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낭만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고통받는 영혼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부분을 가리켜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의 불타는 갈망”이라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그분의 부재 속에서 더욱 간절해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은 자신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의 절대성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리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 병들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분을 찾다가 상처입고 낙심한 때에도, 우리는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은 치유의 사랑이며, 동시에 갈망의 고통을 동반하는 거룩한 병입니다. 주님은 그런 병든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 5:9]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

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딸들의 이 질문은 신부의 사랑을 목격한 이들이 던진 정직한 물음입니다. 그 물음의 본질은 곧 이렇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까지 그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너를 병들게 하고, 밤거리를 방황하게 하며, 상처받고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가?”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신부의 사랑이 그들 눈에 너무도 강렬하고,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에 터져나온 경외심 어린 탄식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문장의 구조는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하였는가?’를 두 번 묻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의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너는 생명조차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구절은 마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는 순결을 지키고, 용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고난을 참아내는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바로 이 질문을 듣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신앙은 ‘열정’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열정은 이성적 논증이나 감정적 위안이 아닌, ‘내 존재 전체로 사랑하는 자’를 향한 전적인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신부의 병은 육체적 질병이 아닌,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불타는 ‘영적 열병’이며, 이는 진정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내면의 동기’를 짚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대상을 위해서만 깊은 헌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은 신부에게 “네 사랑은 얼마나 실체 있는가?”라고 묻는 동시에, 스스로도 그 사랑의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 구절을 ‘복음 전도자의 탄생점’이라 해석합니다. 상처와 기다림 속에서도 신앙을 찬미하는 신부의 고백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그분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복음으로 이끄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가, 아니면 존재의 열정으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 신랑을 향한 깊은 갈망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궁금함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그렇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살아 있는 간증입니다.

[아 5: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아 5:11]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아 5: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 5: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아 5: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 하구나

[아 5:15]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

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 5:16]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신부의 애절한 울부짖음과 간절한 부탁을 들은 예루살렘 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 5:9). 이 질문은 마치 영혼 깊은 갈증을 외면하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상실과 고통 앞에서,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지, 왜 나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로 가치를 재려 하지만, 신부의 영혼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죠.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실존적인 고통, 즉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는 처절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 너를 그토록 아프게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눈길을 보냅니다. 그들의 질문은 우리 영혼 깊은 번민을 겹

모습만으로 판단하려는 세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신부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 깊숙이 자리한 사랑하는 이
에 대한 열망이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이의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눈물겹도록 절절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아 5:10). '희고도 붉다'는 표현은 원어로 <짜흐 베 아돔>으로, '밝은, 눈부신 흰색'과 '붉은, 피 같은 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두 색의 조합을 넘어, 이는 순수함과 생명력, 완벽함의 조화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아픈 영혼이 바라본 지고한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계 19:8)를 입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피 뿌린 옷" (계 19:13)을 입으신 모습처럼,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동시에 품고 계시죠. 신부는 사랑하는 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존재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아 5:11), 이는 그의 지혜와 권위, 그리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정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후 명령하시며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고 그 위전후 좌우로 금테를 두를찌며" (출 25:11)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원한 속성을 상징하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18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거리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고 묘사하듯,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성과 영원한 속성을 드러냅니다.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은 머리털은 시간조차 가두지 못하는 그의 영원한 젊음과 신비로움을 노래합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 5:12)는 얼마나 순수하고 온유한지요. 그 눈빛은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주님의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이자 순결함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듯 (마 3:16, 아 1:15), 그의 눈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눈빛입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아 5:13)는 그의 부드러움과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암시합니다. 몰약은 귀하고 값비싼 향료로, 치유와 정결함을 의미하며, 때로는 고난과 죽음마저도 포용하는 깊은 사랑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2:11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고, 요한복음 19:39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고 기록된 것처럼, 몰약은 주님의 삶과 죽음에 깊이 연결된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신랑의 입술에서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메마른 마음에 향기를 더하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의미를 부여함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119:103)라고 고백했듯, 그분의 말씀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아 5:14), 이는 그의 능동적인 창조와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강인한 능력과 존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 하구나 (아 5:14),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 5:15) 묘사됩니다. 이

모든 묘사는 세상의 어떤 보석이나 예술 작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존귀함과 완벽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마치 가장 정교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할 때 경험하는 경외감과 숭고함이 이 표현들 속에 스며있죠.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은 대상 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이상화'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고 위안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한 심리적 투영을 넘어, 신성한 사랑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감동을 보여줍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부는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 5:16)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랑 자체가 주는 헤아릴 수 없는 달콤함과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이 모든 묘사의 결론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단호하고도 가슴 벅차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 5:16). 이 고백은 단순한

연인의 찬양을 넘어섭니다. '나의 친구'라는 표현은 원어로 <레아>로, 깊은 친밀감과 신뢰, 그리고 함께 하는 동반자 관계를 나타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친구'는 단순한 지인을 넘어 깊은 유대와 충성을 의미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말이죠.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우러러보는 흠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둘도 없는 친밀한 친구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 15:15)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해주시며 모든 것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을 넘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은 이 구절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외치셨을 때, 마치 아가서

의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듯, 그분의 마음에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의 눈은 비둘기처럼 온유하셨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몰약의 향기처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친구" 같은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랑의 실재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과, 마침내 그분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황홀경,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첫째,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붙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여기시며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6 장 =====

[아 6:1]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 6:2]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 6:3]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신랑이 잠시 사라지자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에게 묻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 6:1). 이 질문은 마치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느끼는 상실감과 혼란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고,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 헤매며,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곤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 즉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은 우리가 잊고

있던 주님에 대한 갈망을 다시 일깨우는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관계에서 상실감을 경험할 때, 주변의 관심과 격려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길을 함께 찾아 나서겠다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신부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 6:2). 이 대답은 신부가 신랑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가 동산에서 양떼를 돌보고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신랑의 목자 되신 모습과, 신부의 순결함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으로, 에덴동산처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며, '백합화'는 <쇼샤님>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도 주님은 사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

을 먹이시며,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목자로 늘 우리 곁에 계셨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불안감은 해소되고 깊은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부는 확신에 찬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 6:3). 이 고백은 아가서의 핵심 구절 중 하나로, 상호 간의 완전한 소유와 연합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는 뜻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하고 주님도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건강한 애착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며,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온전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상징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합니다.

[아 6: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위엄 있는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아 6:5]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아 6:6]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은데 쌍
태를 가졌으며 하나도 이르지 아니함이 없구나

[아 6: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신랑은 사라졌던 신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를 향
한 변함없는 사랑과 찬양을 쏟아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위
엄 있는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아 6:4). '디르사'는
당시 북왕국의 수도였던 아름다운 도시의 대명사였
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이자 영광스러운 성
읍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신부의 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신실함을 동시에
칭찬하는 것입니다. "위엄 있는 군대 같이 당당하구
나"라는 표현은 신부의 강인함과 순결한 아름다움
이 가진 영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세상의 가
치 기준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 보시기에 가
장 귀한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이상화된 칭찬'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투사이며, 동시에 그 대상을 높임으로써
자신과의 관계 또한 고귀하게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
여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맥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완전

하게 보시는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지적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이 자신을 '놀래킨다'며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6:5a)고 말합니다. 이는 신부의 시선이 가진 강렬한 매력과,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는 과장법적인 찬사입니다. 그의 눈은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매혹적이며, 동시에 순수하고 깊은 영적인 통찰을 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끌림'의 강렬한 표현으로, 시선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신랑은 이어 신부의 머리털, 이, 뺨을 자세히 묘사하며 그녀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은데 쌍태를 가졌으며 하나도 이르지 아니함이 없구나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아 6:5b-7). 이 묘사들은 신부의 건강함, 풍요로움, 그리고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길르앗 산의 염소떼는 풍성함과 활력을,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떼는 순결함과 번성함을, 석류는 다산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보

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그분에게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 6:8] 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 6:9]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 6:10]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위엄 있는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수많은 왕후와 비빈, 시녀가 있을지라도 신랑에게는 오직 신부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왕후가 육십이요 비빈이 팔십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아 6:8-9a). 여기서 '나의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테맘타>로, '흠이 없고 온전한 자', '결점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 중 특별히 선택하시고,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가

장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흠 없는 신부로 여기시며,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독점적 사랑'의 고백은 관계의 안정성과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강한 자존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신랑은 신부가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자 그 낳은 자가 귀히 여기는 자라고 묘사하며, 다른 여자들마저 그녀를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 6:9b). 이는 신부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존귀함은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 귀하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위엄 있는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 6:10). 이 묘사는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절정으로 이끌며,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영적인 권위와 빛을 발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위엄

있는 군대는 <니드갈롯>으로, 깃발을 들고 위엄 있게 행진하는 군대처럼 강력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 6: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 6: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
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
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신랑은 신부를 찾아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고백합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 6:11). 이는 신랑이 단순히 앉아서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녀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십니다. 이는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위해 노력하고 다가온다는 점에서 깊은 안정감과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 6:12). 이 구절은 신랑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부와 재회하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큰 감격과 위로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딸들은 신부에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 6:13)라고 외칩니다. '술람미 여자'는 신부의 이름으로, '평화로운,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찾은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홀라트 하마하나임>으로, '두 무리의 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야곱이 천사들의 무리를 만난 장소(창 32:2)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환희를 나타내는 춤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부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그녀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메시지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은 이 구절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외치셨을 때, 마치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듯, 그분의 마음에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인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의 눈은 비둘기처럼 온유하셨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몰약의 향기처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죠.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친구" 같은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랑의 실재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과, 마침내 그분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황홀경,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첫째,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갈증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셋째,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친밀한 친구로 여기시며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7 장 =====

[아 7: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아 7:2]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아 7: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 7: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 빔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 7:5]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신랑은 신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홀하게 묘사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아 7:1). '귀한 자의 딸'은 <바트 나디브>이며, 고귀한 신분과 품위를 지닌 여인을 의미합니다. 신을 신은 발은 겸손함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사야 52:7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듯이, 아름다운 발은 기
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넓적다
리는 신체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내면의 힘과 견고
함을 나타냅니다.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
구나'라는 표현은 그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단순
히 타고난 것을 넘어, 마치 예술가가 공들여 빚어낸
작품처럼 완벽하고 조화로우름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
편 139:14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
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
이 잘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듯이, 주님 보시기에 우
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는 완벽하게 빚어진 예술
작품과 같으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면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이어지는 묘사는 신부의 내면적 풍요로움과 생명력
을 시사합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 7:2-3). 배꼽
은 생명의 근원과 풍요를, 섞은 포도주는 기쁨과 즐
거움, 그리고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

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신부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력과 기쁨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허리는 힘과 안정감을, 백합화로 두른 밀단은 순결함과 동시에 풍요로움, 그리고 결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편 1:3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영적인 충만함을 반영합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처럼 순결하고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데, 이는 생명력과 양육의 기능을 상징하며, 관계 속에서 사랑과 돌봄이 충만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과 잠재력을 기뻐하시며, 그것이 온전히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신랑의 칭찬은 신부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어집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아 7:4). 목은 인격과 고결함을, 상아 망대는 견고함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는 잠언 3:3-4의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내면의 고결함을 강조합니다.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은 맑고 깊은 샘을 비유하여 신부의 눈이 깊은 통찰력과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영혼의 창문인 눈을 통해 드러나는 깊은 이해와 평온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시편 19:8의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진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는 신부의 고결함과 굳건한 성품을 의미하며,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는 잠언 4:23의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단순한 외모를 넘어 우리의 인격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아우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면모를 사랑으로 응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은 신부의 머리털을 찬양합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 7:5). 갈멜산은 풍요로움과 장엄함을 상징하며, 자주 빛은 고

귀함과 왕족의 색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는 표현은 신부의 매력이 너무나 강렬하여 왕조차도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매혹될 정도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당신께 묶어두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8:38-39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대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은 깊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몰입과 열정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압도와 깊은 애착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부의 존재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냅니다.

[아 7: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 7: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 7: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 7: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신랑은 신부의 모든 모습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 7:6). '사랑아'는 <아하바>이며, 깊고 친밀한 애정을 담은 호칭입니다.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는 신부가 주는 기쁨이 단순히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신랑에게 활력과 행복을 안겨줄을 의미합니다. 이는 잠언 27:9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으니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그분께도 동일한 기쁨이 됩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를 향한 자신의 갈망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

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술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 7:7-9). 종려나무는 위엄과 풍요, 승리를 상징하며, 그 열매는 풍성함과 달콤함을 나타냅니다. 신랑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잡겠다는 표현은 신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친밀감을 누리려는 그의 강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계에서 더 깊은 교감을 원하고, 그 존재가 주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내면의 강렬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유방은 포도송이처럼 탐스럽고, 콧김은 사과 냄새처럼 향기로우며, 입은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다고 묘사합니다. 특히 '좋은 포도주'는 <야인 하토브>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의미하며, 그 맛이 너무나 달콤하여 자는 사람의 입술까지 움직이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6:35에서 예수님께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갈증을 해소해 주는지,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활력을 주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비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감각적 묘사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욕구와 환희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관계의 친밀도가 극대화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아 7: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1]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 7:12]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3]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가지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신부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 7:10).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에서 신부가 먼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는 구절이 추가됩니다. 이는 관계의 주도권이 신랑에게서 신부에게로 넘어왔음을 시사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과 갈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제는 자신 역시 그를 깊이 사모하며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2:13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을 때,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주도성을 허락합니다.

신부는 직접 신랑을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 7:11-12). 신부는 이제 정해진 공간인 동산을 넘어 넓은 들과 동네로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관계가 더욱 확장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원

하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라는 표현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이 탐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내면의 욕구를 드러냅니다. 포도원의 움과 꽃, 석류 꽃은 생명력과 결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15:5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신부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에텐 엷 도 다이 라크>로, 자신의 모든 사랑과 열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베풀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입니다. 이는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가지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

아둔 것이로다” (아 7:13). 합환채는 <두다임>이며, 강렬한 향기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식물로, 고대에는 사랑의 묘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부의 사랑이 강렬하고 생명력 넘침을 암시합니다. ‘새 것, 묵은 것’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부의 풍성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낌없이 준비하고 쌓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6:19-21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성숙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8 장 =====

[아 8:1]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 8: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아 8:3]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아 8:4]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신부의 첫 고백은 깊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신랑이 마치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아흐 리 요네크 쉘데 이마> 같기를 소망합니다. <요네크>는 '젖을 먹는 자'라는 의미로, 단순히 형제를 넘어선 깊은 혈연적 유대와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형제자매 간의 애정 표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신부는 사회적 시선과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순수한 갈망을 드러내며, 자신이 신랑에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로 야킬루니 이쉬>는 말을 통해 그러한 자유를 꿈꿉니다. <야킬루니>는 '경멸하다', '모욕하다'는 의미로, 신부는 외부의 평가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랑을 간절히 바랍니다.

신부의 갈망은 신랑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신랑을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내 어머니 집에" <엘 베이트 이마> 들이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집'은 가장 사적이고 안전하며, 정서적 유대감이 깊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신부는 신랑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텔람데니>고 말합니다. <텔람데니>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배우다', '지도받다'는 의미로, 신랑의 지혜와 경험으로부터 삶의 깊은 통찰과 지도를 받고자 하는 신부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최고의 환대인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 <미야인 하레카흐 메아시스 림모니>을 "마시웠겠고"라고 말합니다. <하레카흐>는 '향기로운', '향료가 첨가된'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포도주가 아닌 고급스러운 술을 의미하며, <아시스 림모니>는 '석류의 즙'이라는 뜻으로, 귀한 음료이자 최상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으리라" <세모로 타하트 로쉬 위미노 테합베케니

>는 표현은 신랑의 사랑 안에서 신부가 느끼는 완전한 안식과 보호를 강조합니다. <테합베케니>는 '껴안다'는 뜻으로, 신랑의 강력한 보호와 따뜻한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깊은 사랑의 고백 후, 신부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히쉬바티 에트킴 베노트 예루살라임 마 타'이루 우마 테'오레루 엷 하아하바 아드 쉘테흐파츠>. <부탁한다> <히쉬바티>는 '맹세하게 하다', '엄숙히 요구하다'는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타'이루>는 '흔들다', '자극하다'의 의미이고, <테'오레루>는 '깨우다', '일으키다'의 의미로, 사랑의 감정을 억지로 유발하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이는 사랑이 강제되거나 충동적으로 시작되어서는 안 되며, 자발적이고 성숙한 열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 8:5]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쓰는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

가 너를 깨웠노라

[아 8:6]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7]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이제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쓰는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미 조트 올라 민 함미드바르 미트라페케트 알 도다흐 타하트 핫타푸아흐 오라르티카 삼마 히벨라트카 임메카 삼마 히벨라 예라다트카>. '거친 들' <미드바르>은 광야나 황량한 곳을 의미하며, 이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시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미트라페케트>는 '기대다', '의존하다'는 의미로, 신랑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과나무 아래' <타하트 핫타푸아흐>는 신부의

탄생지이자 사랑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사랑이 연결되는 견고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부의 입에서 아가서 전체의 핵심적인 사랑의 찬가가 터져 나옵니다.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시메니 카호탐 알 립 베카 카호탐 알 제로아케카>. '인' <호탐>은 고대 근동에서 신분, 소유, 언약을 증명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고 간청하며, 이는 절대적인 소유와 영원한 헌신, 즉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강렬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명한 구절,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키 아짜 카마웨트 아하바 카샤 키쉐올 킨아 레사페하 리쉐페 에쉬 살헤베트 야흐>가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아짜 카마웨트 아하바>: <아짜>는 '강력한', '맹렬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마웨트>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궁극적인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카샤 키쉐올 킨아>: <카샤>는 '잔인한', '가혹한', '견고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투기' <킨아>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온전히 소유하려는 강렬한 열정입니다. 음부 <쉐올>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며, 투기가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레사뻬하 리쉐페 에쉬 살헤베트 야흐>: <레사뻬하>는 '불꽃',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살헤베트 야흐>는 '여호와의 불꽃' 또는 '가장 강력한 불꽃'을 뜻합니다. 이는 사랑이 맹렬하고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정화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신적이고 영원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마임 랍빔 로 유클루 레카보트 엷 하야하바 우 네하로트 로 이쉬테푸하 임 이텐 이쉬 엷 콜 혼 베이 토 바야하바 보즈 야부주 로>. '많은 물' <마임 랍빔> 과 '홍수' <네하로트>는 엄청난 시련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꺼치지 못하겠고" <로 유클루 레카보트>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멸시를 받으리라' <보즈 야부주 로>는 사랑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아 8: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아 8:9]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10]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사랑의 절정에서 신부는 자신들의 사랑을 넘어 미성숙한 자매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아호트 라누 케탄나 웨사다임 에인 라 마 나아세 라아호테누 베욘 쉘예두바르 바흐>. '작은 누이' <아호트 라누 케탄나>는 아직 사랑에 대해 모르거나 준비되지 않은 이들을 상징하며, "유방이 없구나" <웨사다임 에인 라흐>는 아직 성숙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신들의 풍요로운 사랑 안에서, 아직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연대와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작은 누이'를 위해 견고한 보호와 아름다운 준비를 다짐합니다.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임 호마 히 닙네 알레하 티라트 카세프 웨임 델레트 히 나추르 알레하 루아흐 에레즈>. '성벽' <호마>는 보호와 안전을, '은 망대' <티라트 카세프>는 귀한 가치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문' <델레트>는 드나드는 곳이므로, 신랑과 신부는 그 문을 '백향목 판자' <루아흐 에레즈>로 아름답

게 둘러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백향목'은 견고하고 귀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부는 자신의 성숙한 모습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니 호마 웨사다이 캄미그달로트 아즈 하이티 베 에이나브 케모체아트 샬롬>. <미그달로트>는 '망대'라는 뜻으로, 신부는 자신이 이미 성숙하고 견고한 성벽과 같으며, 그녀의 유방 즉 사랑과 생명력은 망대처럼 굳건하여, 신랑에게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케모체아트 샬롬>는 '평화를 발견한 자'라는 의미로,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신부가 느끼는 완전한 안식과 만족을 나타냅니다. 신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주체적으로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된 성숙한 여인입니다.

[아 8: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 8:12]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부분은 솔로몬의 부와 신부의 소유를 대조하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케렘 하야 리술로모 베바알 하몬 나탄 엷 학케렘 란노트림 이쉬 야비 비프리오 엘레프 카세프>, <하엘레프 레카 술로모 우마타임 레노트림 엷 피르요 카르미 쉐리 레파나야>. '바알하몬'은 '많은 소유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풍요로운 포도원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 <란노트림>에게 맡겨두고 막대한 수익 은 일천, <엘레프 카세프>을 얻습니다. 이는 탐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세상적인 부를 상징하며,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 신부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카르미 쉐리 레파나야>라고 고백합니다. 그녀

의 '포도원' <카르마>은 그녀 자신의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셀리>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를 강조하며, "내 앞에 있구나" <레파나이>는 신부가 이 포도원을 직접 가꾸고 소유하며 온전히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솔로몬이 얻는 천과 비교하며, 자신은 그 포도원 자체를 소유하며, 그 가치는 솔로몬의 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임을 역설합니다.

[아 8:13]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아 8:14]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여라

마지막으로 신랑의 부드러운 초청과 신부의 빠른 응답으로 아가서는 마무리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너 동산에 거한 자야" <하요쉐베트 바간님>라고 부르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동무들'은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고 축복하는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고백과 사랑을 듣고 싶어 하며,

이는 관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감을 강조합니다.

이에 신부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베라흐 도디 우데메 레츠비 오 레오페르 하 아야림 알 하레 베사뎀>. 신부는 신랑에게 '빨리 달리라' <베라흐>고 말하며, 지체 없이 자신에게 오기를 간청합니다. <베라흐>는 '도망치다', '서둘러 가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는 표현은 신랑의 민첩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빨리 오기를 바라는 신부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아가 8장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며,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신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아가서

초판발행	2025.12.0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참영성! CHANCE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심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박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